국제원자력학회협의회(INSC) 회장의 자격

이 창 건
원자력위원 · 국제원자력협의회(INSC) 회장

2001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Global 21」이라는 국제 원자력 학술 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위한 논문 청탁, 논문 심사와 그 발간 및 각 분과의 좌장과 특별 연사 초빙을 책임지고 있는 Technical Program Committee의 Bernard 위원장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가 동양인이 INSC 회장인 것이 의아스럽고 뜻밖이라고 생각했음인지 INSC 회장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대답을 만찬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NSC 회장이 되려면 우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한 다음 긴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준비 운동이라 함은 여러 해 동안 INSC 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우리가 발행하는 여러 간행물 중 한 두 가지를 저술하든가, INSC 정책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INSC 이름으로 발표하는 따위이다.

그런 준비 운동이 인정되면 INSC의 총무 겸 재무(Secretary-Treasurer)에 선출될 확률이 높아진다. 총무로서 2년간 봉사하면 이사회 개최시 회장으로부터 제2부회장직을 수락하겠느냐의 질의를 받으며, 그로부터 2년 후 제1부회장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한 후 전체 회의에서 투표로 다시 신임을 묻게 된다.

이처럼 INSC 임원이 되기 위해선 우선 4년 정도의 준비 운동을 한 다음 6년간 사다리를 꾸준히 올라가야 하므로 무엇보다 강한 체력과 불굴의 의지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의 기획 단계에서 시험 운전 단계를 거쳐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기간과 거의 맞먹는 세월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뇌일혈 · 고혈압 · 당뇨병 · 암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다음에 INSC 사다리의 정상에 올라오면 대개의 경우 정년 퇴직하는 나이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빈번한 해외 출장과 기타의 수많은 경비를 전처럼 소속 기관에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INSC 회장이 되려면 본인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남의 주머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뒷돈을 대주는 sponsor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 중 남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자기 지갑에 말썽없이 옮겨오는 Money-Transfer Engineering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INSC 회장은

첫째, 강하고 건강하고,

둘째, 자기 자신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말썽 없이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셋째, 냉철하고도 따뜻한 난봉꾼 기술자(cool and warm playboy engineer)이면 적격이다

나는 INSC 회장 희망자는 이 분야에서 소질이 있는 Engineer이면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셋째는 중립적이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INSC는 어느 한 국가(national)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international)인 의견을 총망라하는 조직인 까닭이다.

INSC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heterogeneous) 요소를 받아 들이고 소화하여 동질적인 (homogeneous)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용광로(melting pot)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은 그 만큼 뜨거운 열정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도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냉철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장은 cool and warm의 양면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인도원자력학회와 파키스탄원자력학회, 그리고 이스라엘원자력학회와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계 원자력학회가 같은 INSC 산하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사이 좋고 상호 협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국원자력학회와 유럽원자력학회간에 전혀 알력이나 마찰이 없을 것을 기대해도 되겠는가?

우리는 이미 One-China Policy라는 정치 문제에서 파생된 국가 호칭 때문에 오랫동안 골치를 앓아 왔다. 아마 내가 의장 자리에 있는 한, 그리고 한국인이 INSC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2001년과 2002년의 2년 동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학회가 INS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를 준비하면서 북한 학자들이 남한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 판문점을 통해 오면 모든 경비 일체를 전적으로 주최측이 부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도 그들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못 들었다.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INSC 회장은 현안 문제를 단칼로 베어 버리는 직선적인 접근 방법을 선호해서는 안된다.

즉,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두 여자 중 한 쪽의 손만 들어준 솔로몬 대왕식 지혜만으로는 INSC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해야 할 때가 많은 까닭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단항 일차 방정식이라면 INSC의 당면 과제를 풀려면 이따금 다중 다차 다항 연립 방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기술을 난봉꾼 공학(Playboy Engineering)이라고 이름짓고 싶다. 난봉꾼이야말로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 여자를 다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특출한 사나이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INSC 회장은 첫째, 강하고 건강하고, 둘째, 자기 자신이 부자이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말썽 없이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는 특출한 재능이 있어야 하고, 셋째, 냉철하고도 따뜻한 난봉꾼 기술자(cool and warm playboy engineer)이면 적격이라는 얘기이다.